

인어공주: 의식화로 가기 위한 여성성

The Little Mermaid: Development of the Conscious Feminine

류 희 정*

Hee-jeong Ryu

<Abstract>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the symbol of the Little Mermaid that appeared in the subject's sandtray. It explores the process for a woman in her early forties of developing her femininity through the Little Mermaid and the archetypes that appear in the fairy tale of the Little Mermaid according to Jungian psychology.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 of femininity that appears in the sandtray is examined through four types of female archetypes and four types of male archetypes. The therianthropic Little Mermaid is not a complete human form but a symbol of chaos and a symbol of the role of a medium between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This study examines the reasons why the somatizing syndrome that the woman had experienced from her childhood was perceived through the Little Mermaid, and how the journey of her unconscious femininity toward conscientization through encounters with the symbols of masculinity was expressed in the sandtray.

Keywords : symbol, femininity, masculinity, archetype, unconsciousness, consciousness

* 마리아동가족상담센터 (sterra07@naver.com)

I. 서론

어린 시절, 나는 몸이 약해 늘 잦은 병치레를 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로 자주 병원을 들락거리고 큰 수술을 받아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하였다. 식욕이 없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항상 말라있었고 입술은 늘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달리기라든가 신체 활동을 하는 활동은 나에게 버겁기만 하였다. 그래서 친구들과 밖에서 노는 경우도 드물었다. 집에서는 말이 별로 없었고 혼자 노는 시간이 많았다. 조부모와 함께 살았지만 두 분 다 바쁘셨고 손녀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성격은 아니셨다. 특히 할머니는 몸이 약했고 짜증이 많으셨다. 그러나 자신을 꾸미거나 드러내는 것들을 좋아하셨다. 항상 집안일로 바쁜 엄마에게 놀아달라거나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기 보다는 혼자 책을 볼 때가 많았다. 수많은 동화 중 특히 안데르센의 “인어공주”는 수도 없이 반복하여 읽을 만큼 좋아했다. 반은 사람의 모습으로 반은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의 모습을 한 인어공주가 신비롭게 다가왔다. 또한 바다 속에서의 행복한 삶을 살다 바다 위 세상에서 우연히 보게 된 왕자를 사랑하게 되면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포기한 채 왕자의 사랑과 죽지 않는 영혼을 얻기 위하여 인간이 되고자 노력하는 인어공주가 부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였다. 왕자의 사랑을 얻지 못한 대가로 인어공주는 물거품이 되고 마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나에게 소중한 것이 사라져버렸다는 상실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사랑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중요한 것을 희생하는 인어공주의 이야기가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늘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갈구했지만 대식구의 맏며느리인 엄마는 시집살이와 집안 살림을 하느라 나를 돌보아 줄 여유가 없었다. 게다가 네 살 아래 태어난 동생은 아들이라는 이유로 온 가족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 하였다. 남동생은 부러움과 질투의 대상이었다. 내가 부모의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병으로 아플 때였다. 한 달 이상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큰 수술을 받아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때 비로소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다. 내가 아프면 아플수록 부모님은 나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안전한 공간 안에 두고 보호하고 통제하려 하였고 그것은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는 것이라고 느껴졌다. 그래서 나의 몸은 아프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부모에게 나의 필요한 것을 직접 요구하기보다는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병으로 부모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이것은 인어공주가 왕자의 사랑을 갖기 위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마녀에게 내어주고 지느러미 대신 인간의 다리를 얻기 위하여 받는 고통을 감수하는 상징성과도 같다.

상징은 다양한 형태로 자아의 자각에 나타난다. 상징은 꿈이나 환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 상징은 직관 또는 감각스러운 영감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신체적 또는 신체화 증상은 상징적 정보를 몸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Turner, 2005).

결혼 전까지 나의 이러한 신체화 증상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결혼 후 한 남자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증세는 잠시 없어지는 듯 했으나 남편이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거나 소홀하다고 느껴질 때면 그 증세는 다시 나타나곤 했다.

모래놀이치료 분석을 받으면서 맨 처음 모래상자에 나타난 상징이 인어공주이다. 분석 시간동안 인어공주의 상징은 자주 나타났다. 상자에서 인어공주와 더불어 왕자나 마법사 그리고 왕의 상징들이 함께 등장하였다. 무언가 중요한 일들이 나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내가 치료하고 있는 성인 내담자나 아동 내담자들의 모래상자에 인어공주가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상징 페이지에서는 나에게 있어 인어공주 이야기가 주는 의미에 대하여 Jungian에 입각하여 분석해보고 내가 만난 내담자들에게 인어공주는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으며 그것으로 하여금 그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인어공주이야기

다음은 안테르센의 “인어공주”이야기이다.

바다 밑 가장 깊은 곳에 인어 임금님의 성이 있었다. 인어 임금님은 왕비님을 잃고 몇 해 째 혼자 지내고 있었다. 그래서 늙으신 임금님의 어머니가 식구들 뒤치다꺼리를 도맡아 하였다. 임금님의 어머니는 현명한 분이셨지만, 높은 신분을 자랑하느라 꼬리에 굴을 열 두 개나 달고 있었다. 인어임금님에게는 여섯 명의 공주가 있었는데 하나같이 아름다웠다. 그 중 막내 공주가 가장 사랑스러웠다. 어린 공주들은 저마다 정원에 작은 꽃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내공주는 해님처럼 동그란 꽃밭을 만들어 해님처럼 새빨간 꽃만 심었다. 막내 공주는 얄전하고 늘 생각에 잠겨 있는 별난 아가씨였다. 가라앉은 배에서 가져온 진기한 물건으로 정원을 꾸미는 다른 언니들과 달리, 높은 하늘에 떠있는 해님처럼 빨간 꽃과 아름다운 조각상만을 소중히 여겼다. 이 조각상은 투명하리만치 새하얀 대리석으로 만든 소년상이었는데, 난파된 배에서 떨어진 것이다.

공주들은 할머니를 통해 인간 세상 이야기를 들을 때가 가장 즐거웠다. 공주들이 열다섯 살이 되면 바다위로 올라 갈 수 있었다. 막내공주는 바다 위 세상을 가장 동경하였으나 5년을 기다려야만 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공주는 열다섯 살이 되는 생일에 바다위로 올라 갔다. 공주가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을 때 해가 지고 있었고 바다는 거울처럼 잔잔했다. 맞은편에 돛이 세 개 달린 배가 떠 있었는데 선실 창 가까이로 헤엄쳐 간 인어공주는 왕자를 보게 된다. 마침 왕자의 생일잔치가 배안에서 열리고 있는 중이었다. 아름다운 모습

의 왕자를 본 인어공주는 한시도 눈을 땔 수가 없었다. 그때 배가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고 파도가 거칠어지고 커다란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멀리서 번개가 번쩍였다. 거대한 파도가 배를 덮쳐 배는 두 동강이 나고 왕자가 깊은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다. 인어공주는 왕자가 죽게 내버려둘 수가 없었고 왕자를 구해낸다. 인어공주는 왕자를 안고 해안가 따듯한 햇볕이 드는 곳에 왕자를 눕혀놓는다. 그때 커다란 흰 건물 안 수도원에서 종이 울리고 젊은 아가씨들이 정원으로 쏟아져 나왔다. 인어공주는 얼른 바다로 뛰어들어 커다란 바위 뒤에 숨었다. 아무도 자기를 볼 수 없도록 머리와 가슴에 바다거품을 뒤집어쓰고서, 한 아가씨가 왕자 쪽으로 다가가고 사람들을 불렀다. 마침내 왕자가 정신을 차리고 사람들과 함께 큰 건물 안으로 옮겨지자 인어공주는 슬픔에 잠긴 채 바다 속, 성으로 돌아온다. 공주는 왕자를 잊지 못해 아침, 저녁으로 왕자와 헤어진 곳으로 찾아가게 되고 점점 더 인간세상을 동경하게 된다. 바다 위 쪽 세상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점점 더 많아진 인어공주는 할머니에게서 인어들은 300년을 살 수는 있지만 죽고 나면 바다의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인간은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된다. 그리고 죽지 않는 영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부모보다 더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인간이 나타나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맹세하는 방법밖에 없지만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인어공주는 왕자님과 죽지 않는 영혼을 얻기 위해 바다 마녀를 찾아가고, 바다마녀를 만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부숴버리는 소용돌이 너머를 통과하여야 하고 끈끈한 거품이 이는 수렁과 석탄 늪, 그리고 반은 동물이고 반은 식물인 히드라 숲을 지나야만 했다. 마침내 마녀에게 다다른 인어공주는 인간이 되기 위해 자신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마녀에게 주고 인간의 다리를 갖게 되는 물약을 얻게 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고를 받는다.

“아름다운 다리가 생기기 위해서 날카로운 칼에 찢리는 듯한 아픔을 견뎌야만 한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토록 아름다운 아가씨를 본 적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날카로운 칼을 밟아 피가 철철 흐르는 고통을 느낄 것이다. 또한 한번 인간의 모습으로 되고 나면 다시는 인어로 돌아올 수 없다. 게다가 왕자가 자기 부모를 잊을 만큼 너를 좋아하고 너만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는 결코 영혼을 얻을 수 없다. 만약 왕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한다면 그 다음날 아침 너는 심장이 터져 물거품이 될 것이다.”

해가 뜨기 전 인어공주는 왕자가 있는 궁전에 이르러 타는 듯이 독한 물약을 마신다. 그러자 날카로운 쌍날칼에 찢리는 듯한 아픔이 몰려와 정신을 잃는다. 햇볕이 바다를 비추기 시작할 무렵 왕자는 인어공주를 발견하고 어디서,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물어보지만 인어공주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바다마녀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줬기 때문이다. 왕자는 아름다운 인어공주를 데려가 값비싼 옷을 입히고 어디를 가든 인어공주를 데리고 다녔다.

왕자와 주변사람들은 인어공주를 ‘주어 온 사랑스런 아가씨’라고 부른다.

왕자는 날이 갈수록 인어공주를 좋아하긴 하지만 신부로 삼으려는 생각은 없었다. 왕자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구해줬다고 생각하는 다른 아가씨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공주는 어떻게든 왕자의 신부가 되어야만 했다.

어느 날 왕자는 부모님의 명을 받고 이웃나라의 공주를 만나러 여행을 떠난다. 인어공주도 함께 동행한다. 그곳에서 만난 이웃나라의 공주는 왕자가 바닷가에 쓰러져 있을 때 자신을 구해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아가씨였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린다. 그 날 저녁 신랑과 신부는 배에 올라탄다. 인어공주는 그 밤이 지나면 물거품이 되고 만다. 새벽이 밝아오기 전 언니들이 단도 하나를 들고 나타나, 인어공주에게 주며 말한다. “해가 떠오르기 전 이걸로 왕자의 심장을 찔러야 해. 왕자의 따뜻한 피가 묻으면 다리는 다시 하나로 모아져 물고기의 꼬리가 되고 너는 다시 인어가 되어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어. 자, 서둘러! 해가 떠오르기 전 왕자든 너든 둘 중 하나는 죽을 수 밖에 없어!” 인어공주는 단도를 들고 왕자가 잠들어 있는 천막으로 들어간다. 거기에는 아름다운 신부가 왕자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다. 인어공주는 날카로운 단도를 지그시 바라보다가 다시 왕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았다. 단도를 쥐던 인어공주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 순간 인어공주는 단도를 바다 멀리 던져 버리고 바다에 몸을 던진다. 자기 몸이 녹아 거품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 때 바다위로 해가 떠올랐고 햇빛이 죽음처럼 차가운 바다 거품을 포근하고 따사롭게 비추었다. 인어공주는 죽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 인어공주는 자신의 몸이 점점 가벼워져 거품속에서 빠져나와 자꾸만 위로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인어공주가 물었다. “나는 어디로 가는 거죠?” 공기의 딸들이 대답했다. “공기의 딸들이 있는 곳이죠. 인어아가씨에게는 죽지 않는 영혼이 없어요. 인간의 사랑을 얻지 못하면 결코 영혼을 얻을 수 없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력을 얻으려면 다른 힘에 의지해야 해요. 좋은 일을 하면 얻을 수 있죠. 300년 동안 좋은 일을 꾸준히 하면 우리도 인간처럼 죽지 않는 영혼을 얻어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어공주는 사람들 모르게 신부에게 입 맞추고 왕자에게도 빙그레 웃어 주었다. 그러고는 공기의 딸들과 함께 높은 하늘을 흘러가는 장밋빛 구름으로 올라갔다(Andersen, 2010).

II. 인어공주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폰 프란츠(1999)는 동화에 대하여 “집단 무의식적 정신과정(the collective unconscious psychic processes)으로 가장 단순하고, 간결하며, 가장 핵심적인 형태의 원형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인어공주 이야기에 나오는 각각의 인물들이 갖는 상징의 원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인어공주는 상체는 여자이고 하체는 물고기의 지느러미를 가진 동물이다. 인어공주와 같은 반인반수의 형태는 신화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나타나는 반인반수는 신과 인간의 부정합 결합으로 인해 탄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스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반인반수들의 특징은 반인반수들이 지닌 동물적 표상이 그들의 특성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라 어떤 단일하고 일관된 질서에 의해 통일되지 않는 무질서와 혼돈의 상태임을 암시한다는 점이다(Lee, 2005). 인어공주는 의식과 무의식이 만나는 매개체로서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아직 의식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본능적 에너지이다. 무의식적인 것을 의식화 하려면 자아가 있고 의식이 있어야 한다. 자아가 없으면 인간정신의 성숙도 불가능하고 Jung의 개성화(Individuation)도 불가능하다(Lee, 1978). 인어공주는 바다 속 깊은 곳에 산다. 바다는 무의식의 상징이다. 바다의 거대한 물의 표면 바로 밑에는 알 수 없는 무의식이 담겨있다(Turner, 2009). 인어공주는 바다 속과 바다 위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이것은 무의식과 의식세계를 넘나 들 수 있는 상징이다. 그러나 완전하게 땅의 세계를 밟지는 못한다.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완전한 두 다리를 갖고 있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다. 아직은 미성숙한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 인어공주는 의식의 세계에서 연인으로서의 남성 원형인 왕자를 만나게 된다.

Moore와 Gillette는 성인 남성 원형에 대하여 왕, 연인, 마술사, 전사 4가지로 세분화 했다(이 네 가지 원형 유형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언급할 것이다.). 아직 무의식에 미분화 상태로 남아있는 인어공주의 아니무스는 왕자를 만남으로 인해 의식화로 가기 위한 인간의 모습이 되길 원하고 마녀를 만나러 간다. 마녀를 만나러 가는 험난한 여정은 initiation, 즉 어린 소녀에서 성숙한 여인으로서 가기 위한 과정이다.

인어임금님은 왕비가 없이 몇 해째 홀로 지내고 있다. 그는 반려자, 히타이라(Heitaria)로서의 아니마가 아닌 어머니로서의 여성 원형인 아니마를 가지고 있다. 인어임금님의 어머니가 바로 그것일 것이다.

Toni Woolf(1981)는 “여성정신의 구조적인 형태”로 확인한 성인 여성성 발달의 모델에서 4가지의 측면을 소개한다. 어머니의 정신적 형태, 여자친구인 히타이라(Heitaria: 고대 그리스의 고급기생), 메디알레(Medialle: 중개자나 영매의 힘을 지닌 자), 그리고 아마존(Amazone: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호전적 여전사)의 정신적 형태이다. 어머니가 갖는 모성은 감싸고 보살피고 돕고 베푸는 것이다. 위협에 처한 사람, 아직 미성숙하며 보호가 필요한 성장과정에 있는 이들에게 본능적으로 피난처를 제공하고 그 성장을 돕는다. 어머니가 갖는 부정적 측면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은 근심걱정과 보살핌이 상대방의 자립심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히타이라(반려자)는 본능적으로 남자의 개인적인 관심, 성향, 혹은 온갖

문제들을 주목하며 그런 측면을 자극하고 촉진한다. 남성 속에 있는 개성적인 정신을 일깨워 그로 하여금 사회적 책임을 넘어 전체인격을 실현하도록 돕는다. 그러나 결혼한 여성이 자신의 히타이라의 성질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억압하면 아들을 은밀하게 애인으로 삼고, 딸을 여자 친구로 삼는다. 아마존의 긍정적 측면은 남자의 신성한 여동지로서 남성의 명예욕을 자극하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경쟁자로서의 역할에 있다. 부정적 측면은 군위나 우월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여권참정주의의 계관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오직 남성적인 무기로만 싸우고 집에서는 毒婦(독부)가 되는 것이다. 메디움, 영매자는 모든 문화가치의 원천인 무의식적인 배경을 지각한다. 이들은 무의식의 의식화되고자 하는 측면의 영향을 입어 이에 흡수되고 때로는 그 내용을 표현한다. 집단적 무의식과 개인적 무의식을 구별하기 위하여 성숙한 자아의 태도가 필요하지만 자아가 활성화된 원형적 내용에 맹목적으로 동화되면 자아는 원형의 지배아래 놓이게 되고 주·객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Lee, 2001).

인어임금의 나이 든 어머니는 경험이 많고 현명함을 가지고 있으나 자신이 있는 바다세계를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어공주에게 인간이 되려고 하는 것은 무모한 것이며 바다세계만이 안전한 공간임을 강조한다. 그녀는 어머니 역할로서 아직 미성숙한 인어공주를 보살피지만 필요이상의 걱정과 보살핌으로 의식화로 가는 것을 막는다.

인어공주가 인간이 되기 위해 만나는 마녀는 무의식 속에 있던 인어공주의 의식화를 돕는 영매적인 여성 즉 메디알레이다. 그러나 마녀는 성숙한 자아를 가진 것이 아니어서 인어공주의 목소리를 빼앗아 가는 파괴적인 행동으로 마녀의 자아는 원형의 지배 아래 놓여진다.

왕자와 결혼 하게 되는 이웃나라의 공주는 히타이라(반려자)이다. 인어공주에게 있어서 왕자는 lover의 원형으로 성숙한 여성으로 의식화하기 위한 남성성이지만 왕자 또한 연인으로서의 기능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전체인격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형이 바로 히타이라이다.

인어공주가 가꾸었던 해님처럼 동그란, 새빨간 꽃으로 꾸민 정원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하다. 태양은 빛과 열기의 근원이므로, 우리의 삶의 에너지이다. 태양이 낮을 밝힌다는 것은 모든 사물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밝힘, 인식 그리고 의식의 상징이다(Amman, 2009). 꽃은 전체성의 상징이다. 또한 사랑의 표현으로 여성성과 연관된다(Lee, 2001). 인어공주는 무의식의 바다에 살면서 의식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늘 해왔다는 것이다. 인어공주의 여성성이 정원에 놓인 소년 조각상을 통하여 환타지적인 남성성을 만나게 되고 실재의 왕자를 만남으로 인해 비로소 인어공주의 무의식속의 여성성은 의식에 있는 남성성으로 향한다.

왕자를 죽이지 못하고 죽음으로써 물거품이 되는 인어공주는 물거품에서 빠져나와 공기

의 딸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력을 얻기 위해 하늘로 올라간다. 물거품은 공기와도 같이 가볍다. 기원전 2세기경 스토아 철학자들은 공기를 영혼과 동일시했다. 공기가 상징하는 것은 자유, 순수성, 정신적 삶이다(Tresidder, 2000).

인어공주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 이것은 무의식을 통해 자기원형을 찾는 인어공주의 자아의식이 실천에 옮기는 능동적인 행위, 즉 자기실현을 향한 자유의지이고 의식화로 향한 여성성발달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Ⅲ. 모래상자에서의 인어공주의 상징

여기에서 나의 개인적 모래사진에 대한 주관적 해석과 모래상자에 나타난 인어공주와 함께 나타난 왕자, 왕 그리고 마법사의 상징에 대하여 Moore & Gillette의 성인 남성성 원형에 기초하여 해석해 보고자 한다.

1. 인어공주가 왕자를 만나다

Fig. 1은 첫 번째 모래상자에 나타난 사진이다. 상자의 중앙은 커다란 원의형태로 바닥이 드러나 있다. 상자의 왼쪽 상단에 그리스 신전과 같은 오래된 형태가 온전치 않은 기둥이 있고 그 아래에 인어공주가 앉아 있다. 인어공주의 왼편에 작은 항아리가 있으며 마치 그 항아리에서 나온 것과 같은 진주 하나가 놓여져 있다. 상자 오른쪽 하단에는 여러 색깔의 보석들이 흩어져 있다. 오른쪽 하단에서 왼쪽상단으로 향해 가는 범선이 놓여져 있으며



Fig. 1. Sandpicture showing the Little Mermaid and the Prince

여기에는 왕자가 타고 있다.

“나는 인어공주다. 태고적부터 오랜 시간동안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에서 지내왔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누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언젠가 그 사람이 나를 찾아 올 것으로 믿는다. 내가 지켜야 할 소중한 보물이 있다. 아직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없다. 저기 멀리서 누군가 나를 향해 오고 있다. 멋진 배를 타고 오는 그는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연인이다. 그는 나를 데리고 갈 것이다.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계로 나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항상 사랑 받기를 원했다. 나의 어린 여성성은 수동적 태도로 부모가 나에게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기만을 기다렸다. “여성성을 수동적이고, 조작적이거나, 비생산적인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거부”하는 경험을 할 때 여자 영웅의 여정이 시작된다고 하였다 (Murdock, 1990). 이 모래상자를 꾸밀 당시 나는 상담센터를 맡게 되어 의욕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모래놀이치료라는 새로운 경험에 대하여 빠져들고 있었다. 가정에서의 엄마, 아내, 그리고 딸과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는 것과 새롭게 시작한 일에 대한 성공하고 싶은 욕구 사이의 갈등이 이때부터 표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맡은 역할에 대해 어느 것 하나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일과 공부를 그만두고 오로지 양육과 가사 일에 전념할까 하는 내적 갈등이 너무 힘들었다. 나는 나를 찾고 싶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가야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연인(Lover)은 생동감, 살아있음, 열정이라고 부르는 태초의 원형에너지이다. 그것은 우리의 성, 음식, 안녕, 재생산, 고단한 삶에 대한 창조적 적응,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을 지속시키는 존재의 의미 등등에 대한 인류 원초적 갈망 속에 이어져 왔다. 연인은 이상주의자이며 꿈꾸는 자이다. 남자가 그림자 연인에 사로잡히면 중독되고, 연인에너지는 그와 주위사람들을 파괴한다. 연인은 다른 남성 에너지들로 하여금 인간적이고, 더 애정있게 만들며 어려운 세상에서 애쓰는 인간들의 실제 생활에 이 에너지들이 스며들도록 한다(Moore & Gillette, 1990). 나는 아직 왕자가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수동적 여성성의 형태를 보이지만 의식화로 갈 준비를 하고는 있다. 그리고 연인은 열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도록 나에게 에너지를 준다. 연인도 다른 남성 에너지들을 필요로 한다. 경계선이 없는 연인은 한계를 정해주고, 조직시켜주고, 그의 혼돈에 질서를 잡아주는 왕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결단력 있게 행동하기 위해선 전사가 필요하다. 연인이 감정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뒤로 물러서서 심사숙고하고,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얻기 위해선 마법사가 필요하다고 Moore와 Gillette는 말한다.

다음 사진에서 나타나는 왕과 마법사의 상징들은 처음 나타난 연인과 연계되어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다. 이 모래상자에서 등장하는 배는 인어공주와 왕자를 연결

시킨다. 배는 여성적인 용기(feminine vessel)이고 서로를 연결시키고 사람들을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여성적이고 무의식의 바다를 향해 한다는 것은 무의식 속에 빠져 익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Von Franz, 1999).

2. 인어공주가 마법사를 만나다

Fig. 2에서 모래상자가 상하로 나뉘어져 있다. 모래상자 위쪽에는 거칠게 표현된 파도와 불기둥이 있다. 우측 상단(right rear) 조개 안에서부터 붉은 구슬이 왼쪽 하단(left near)에 놓여진 왕으로까지 이어진다. 조개는 여성성을 상징한다. 왕은 모래상자 좌측하단(left near)에서 있고 먼 곳을 바라보고 있다. 조개 옆에는 여성성의 상징인 고양이를 안고 있는 여자마법사가 있다. 가운데 중심에는 햇불을 들고 있는 마법사가 왕을 향하여 있고 그 좌측에는 거울을 들고 있는 또 다른 여자 마법사가 우측에는 구슬을 들고 있는 또 다른 남자 마법사가 있다. 그리고 인어는 붉은색으로 이어진 길을 따라 붉은 구슬을 들고 왕을 향해 가고 있다.



Fig. 2. Sandpicture with the little mermaid

“나(인어공주)는 깊은 바다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여행을 떠난다. 나에게 소중한 보물을 가지고 바다 밖 세상으로 나아가고. 붉은 색의 구슬은 내가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나의 중심축이다. 고양이를 안고 있는 마법사는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던 어머니이다. 그녀는 내가 떠나는 것을 슬퍼하지만 나를 붙잡아 둘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뒤에서 응원을 해준다. 내가 새로운 세계로 가기 위해 마법사가 햇불을 비춰주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한다. 구슬을 들고 있는 마법사는 지혜를 주기 위한 주문을 외운다. 거울을 들고 있는

마법사는 거울에 비춰진 미래에 대해 예측하고 있다. 나는 왕을 만나야만 한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에 두렵지만 떠나야 하는 그것이 나의 운명이다.”

Fig. 1에서 연인이 오기를 기다렸던 인어공주는 왕자와의 만남을 통해 Fig.2에서는 수동적 여성성의 모습으로부터 능동적 여성성으로의 변화를 가져온다. 조개는 에로스적인 여성성의 상징이고 탄생의 상징이다. 조개안의 붉은 구슬은 인어공주가 바다 속 정원에서 가꾸었던 새빨간 꽃의 상징과도 같이 의식화로 갈 수 있게 하는 삶의 에너지이다. 조개 안에서의 여성적 에너지가 탄생하여 스스로 왕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자기실현을 위해서 남성적인 인격과 여성적인 인격의 합일, 또는 여성적인 의식과 남성적 무의식의 합일이 있어야 한다(Lee, 2001). 인어공주는 남성적 무의식을 만나기 위해 왕을 향하여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길을 떠난다. 왕은 권위가 있고 근엄하며 혼돈상태의 질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나의 삶에서 왕은 공부와 가정주부로서의 삶에 대해 갈팡질팡하는 상태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징이다. 나의 아버지는 때로는 폭군이었으며 때로는 한없이 무기력한 부정적 이미지의 왕이었다. 나는 항상 권위 있고 근엄한 자애로운 왕의 남성성을 찾았다. 여기에서 왕은 여성성의 의식화를 위하여 내가 만나야 하는 상징이다. fig. 2의 모래상자에는 세 명의 마법사와 한명의 영매자가 등장한다. 한명의 여자 마법사와 두 명의 남자 마법사이다. 각각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대극을 의미한다.

마법사 원형 에너지는 지혜로운 자이며 기술의 숙달자이다. 관찰하는 자아와 조화를 이루며 우리를 다른 원형의 힘으로부터 분리시켜 주고 심사숙고하고 사려 깊게 하는 원형이다. 마법사의 그림자적 측면은 조작자와 부정하는 ‘순진한 자’이다(Moore & Gillette, 1990).

모래상자에 나타난 네 명의 figure들은 각각 흰 고양이, 햇불, 구슬, 거울 등을 들고 있다. 흰 고양이는 치유자요, 간호하는 자(nurse)이다. 악을 파괴하고 초조함을 없애주고 사람들의 회복하는 힘을 강화 시켜준다(Von Franz, 1999). 흰 고양이를 안고 있는 여자 마법사는 Wolff(1981)가 말하는 여성성 발달 모델 4가지의 측면 중 어머니의 상징이다. 햇불을 들고 있는 마법사는 왕을 향하여 서있다. 햇불은 생명의 상징이기도 하고 인어공주가 왕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길을 밝혀주는 인도자의 역할이다. 거울은 자기인식, 지혜, 정신을 의미한다(Cooper, 1978). 거울을 들고 있는 여자 마법사는 메디움의 역할이다. 여성성이 무의식의 의식화되고자 하는 측면에서 성숙한 자아가 필요하다. 불기둥은 의식화에 근접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생명의 불이다(Moore & Gillette, 1990).

마법사를 만난 인어공주는 드디어 자신의 무의식 세계에서 나와 의식으로 향한다. 그 의식 세계에는 왕이 있다. 의식세계로 가기 위해 세 명의 마법사들과 한명의 영매자는 각기 인어공주를 돕는다.

3. 인어공주가 왕을 만나다

Fig. 3은 모래상자 중심에 보라색의 구슬과 보라색의 원석을 가운데 두고 고양이를 안고 있는 여자 마법사와 인간이 된 인어공주, 횃불을 들고 있는 마법사 그리고 왕이 원으로 둘러서 있다. 좌, 우, 아래로 약간의 젖은 모래로 만든 언덕이 세 개가 있으며 삼각형을 이룬다.

“나는 드디어 험난했던 모든 여정을 마치고 인간이 되었다. 아름다운 여성으로서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중심에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내가 있고 인간이 되기 위한 과정을 통해 다듬어진 내가 있다. 그 둘 다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내 자신이다. 나와 마주한 여자 마법사는 모성을 잃지 않게 지켜주는 마법사일 것이다. 나의 성숙한 여성성의 모습일 것이다. 횃불을 들고 있는 마법사는 긴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나를 지켜 주었다. 나에게 지혜와 때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문제를 바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었다. 나는 마침내 왕을 만났다. 품위를 잃지 않는 근엄함과 공정함을 갖춘 왕은 내 마음의 중심을 잡아준다.”



Fig. 3. The Little Mermaid has become human

인어공주는 의식화 과정을 통해 인간이 되었다. 보라색의 두 가지 보물을 중심에 두고 생명의 상징인 횃불을 들고 있는 마법사가 있고 치유의 상징인 흰 고양이를 안고 있는 매디움이 있다. 그리고 왕이 있다.

왕은 경험이 풍부하고, 복합적이고, 현명하며, 이기심이 없다. 남성 원형 에너지 네 가지 중 가장 중요하며 다른 나머지 원형들을 완벽하게 균형 잡아준다. 왕 에너지는 두 가지 기능을 한다. 첫째는 질서잡기, 둘째는 풍요와 축복을 주는 것이다. 왕의 그림자 측면은 폭군과 나약한 자이다(Moore & Gillette, 1990).

이 모래상자에서 왕은 인어공주에게 의식에서의 균형을 잡게 해주고 축복을 허락한다. 여기에서도 남성성과 여성성의 대극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라색의 다듬어지지 않은 보석은 아직 내가 발견하지 못한 Self의 한 측면일 수 있고 동그란 형태의 구슬은 의식화 과정을 통한 Self 일 수 있으며 자기실현을 한 결과일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내가 어느 것 하나 외면하거나 버릴 수 없는 내 자신이다. 그리고 건강한 남성성과 여성성이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모래상자에 나타난 인어공주는 남성의 원형인 연인, 왕자를 만나기 전까지 수동적 여성성을 가지고 깊은 무의식 세계에서의 자아가 있었다면 왕자를 만나 후 무의식에 있던 자아는 능동적으로 의식화하기 위한 단계로 향한다. 그 과정에서 마법사의 지혜는 관찰하는 자아를 가지게 하고 조화를 이루게 해준다. 의식화 단계를 거친 인어공주는 왕을 만나 인간이 되고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자기 개성화의 길로 접어든다고 볼 수 있다.

4. 내담자의 사례에서 본 인어공주의 상징

1) Case 1

다음 사진은 37세 여성의 10회기 사진이다. 이 여성의 자녀는 ADHD로 지속적인 상담을 받고 있었고 자녀의 문제에 대하여 인식은 하지만 수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 변화되는 일관적이지 못한 양육태도의 문제를 갖고 있었다. 내담자 자신이 어머니로부터 분리되지 못하고 있었고 집안 정리도 잘 할 수 없고 어느 것 하나에 집중할 수 없는 점과 우울, 무기력, 짜증, 화 등을 보고하였다.

모래상자 중앙을 손바닥으로 원의 형태로 만들고 그 안에 푸른색계열의 크리스탈 구슬



Fig. 4. Sandpicture of Counselee #1

을 놓았다. 좌우 사이드에는 넝쿨과 큰 나무를 놓았고 중앙에 인어공주를 놓았다. 원을 둘러싸듯이 네 명의 요정들을 놓았으며 하나의 조개 상징을 놓았다. 오른 편 쪽에 모래시계와 왕자가 놓여져 있다.

내담자: “동화 같은 편안한 느낌이다. 마법사들이 시간 안에 공주를 변화시키려고 한다. 몇 시까지 변화를 시키던 시간의 제한이 있는 것 같다. 인어공주는 아직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사랑을 받아야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왕자가 기다릴 수 있으니까 사람이 될 것 같다. 물론 물고기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사람이 될 것 같다. 마법사들이 사람이 되게 도와주지만 갑갑하게 억누르는 듯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게 하는 것 같다. 마치 엄마를 보는 것 같기도 하다.”

원의 형태로 네 명의 마법사가 마주보며 함께 있다. 여기에서 인어공주는 꿈쩍 못하고 앉아 있는 듯하다. 인어공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왕자가 있기는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고 서로 바라보고 있지도 않다. 인어공주는 아직 소녀의 형태로 남아있는 엄마로부터 분리가 되지 않은 내담자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네 명의 마법사들은 Toni Woolf(1981)가 말한 성인 여성 발달단계에서 영매자로서의 역할만이 등장하였다. 결혼과 자녀가 있음에도 불과하고 내담자는 집안 살림 문제와 아이의 양육문제로 인하여 어머니와 늘 갈등적이고 불안정한 관계를 맺어왔다. 상담을 통해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하여 새롭게 조명해 나가고 있는 중에 이와 같은 상자가 나타났다. 내담자가 여자 마법사에 대하여 자신의 어머니와 같다고 이야기한 것과 시간적으로 늘 제한을 둔 어머니와 현재 자녀에게 똑같이 시간적 제한을 두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내담자는 치료과정에서 어머니와의 분리를 통한 자아의식의 발달을 해야 할 것이다. 인어공주가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마법사들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어공주 스스로가 깊은 무의식에서 자신이 원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다.

2) Case 2

Fig. 5는 만 5세 아동이 6회기에 꾸민 모래상자이다. 모의 보고에 의하면 아동은 유치원에 다니던 중 상급생으로부터 맞았고 이 일로 내담자의 부모가 유치원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부모간의 갈등이 유발되고 결국 아동은 유치원을 그만두었고 부모가 해당교육청에 불평을 하면서 상담으로 연결된 케이스이다. 아동은 위로 누나 두 명이 있으며 모의 양육태도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통제하려고 하며 불안이 높다. 아동은 상담 초반에 모래상자 안에서 공룡과 같은 원시적 동물들을 가지고 주로 공격하고 싸우는 놀이를 했다. 제대로 모래상자를 꾸민 첫 번째 상자이다.

모래상자 왼편의 바닥을 드러내고 우측에 가구 등을 갖다 놓았다. 울타리로 집과 밖을 구분하듯이 하였고 전투기와 전투기구, 비행기, 작은 쥐가 있다. 침대위에 인어공주 2명을 눕혀 놓고 소파 위에 한명의 인어공주가 누워 있다.



Fig. 5. Sandpicture of Counselee #2

“바닥을 깨끗이 해야 돼! 여기 누가 오면 안 돼, 막아야 돼. 선생님이 오셨다(인어공주-소파에 놓음). 언니들... (두 명의 인어공주들을 침대에 놓으며). 적이 쳐들어오면 이 비행기 타고 도망가면 돼.”

아동은 누나와 형이라는 표현보다 언니라든가 오빠라는 표현을 쓴다. 아마도 누나들의 영향 같으며 인어공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다. 인어공주는 누나와 어머니 일 수 있다. 아동은 남자들보다는 여성과의 관계가 더 많기 때문에 또래의 같은 성이나 형들과의 관계 맺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내담자는 유치원에도 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래와의 놀이보다 혼자 노는 시간이 길어졌고 엄마와 지내는 시간이 많지만 엄마가 아동과 노는 것을 힘들어 했다. 인어공주의 형태도 어린 인어공주의 모습이기 때문에 모와 아직은 분리되지 않은 내담아동일 수 있다.

IV. 결 론

나는 지금까지 인어공주가 주는 여성의 상징성과 인어공주가 만난 남성 원형의 상징들을 통해 무의식 안에 있던 자아가 의식화 과정을 통해 하나의 자기(Self)를 발견했다. 자기

를 발견하기 위해 입문(Initiation)의 과정도 겪어야 했다. '자아'가 '자기'로 향해 가는 것, 다시 말해 전체가 되는 것은 자아가 무의식을 적극적으로 의식화함으로써 가능하다. 이것을 Jung은 자기실현 또는 개성화로 불렀다. 무의식은 끝없는 세계이다. 아무리 의식화해도 미지의 세계는 남아 있게 마련이다(Lee, 2001). 아직 나는 남성원형 중 전사를 만나지는 못했다. 전사가 갖는 공격성은 삶에 대한 자세로서 의식을 일깨우고 기운을 북돋으며, 동기를 유발시킨다. 전사는 명료하게 생각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한계와 능력을 현실적으로 파악한다(Moore & Gillette, 1990). 내가 계속해서 내가 개성화(individuation)의 과정을 간다면 언젠가 나에게 필요한 남성 원형인 전사를 만날 것이다. 자기실현 즉 개성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는 중년 이후부터이며 이것은 고통을 감내하는 힘을 주고 고통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한다(Lee, 2002). 나에게 있어 자기 발견을 위한 여성성과 남성성의 만남은 중년으로 접어들면서도 성숙하지 못했던 삶에서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과정인 것이다.

References

- Amman, R. (2001). *Das sandspiel: Der schöpferische weg der persönlichkeitsentwicklung*. Dusseldorf: Walter. (Korean trans. 2009)
- Andersen, H. C. *Fairy tales and stories*: Seoul: Sigongjunior. (Korean trans. 2010)
- Cooper, J. C. (1978). *An illustrated encyclopaedia of symbols*. London: Thames and Hudson. (Korean trans. 1994)
- Lee, B. Y. (1978). *Analytic psychology*. Seoul: Ilchokak.
- Lee, B. Y. (2001). *Anima and Animus*. Seoul: Hangilsa.
- Lee, B. Y. (2002). *Self and Self-realization*. Seoul: Hangilsa
- Lee, I. Y. (2005). Study of therianthropes in oriental and western myth. *Kafka-Forschung*, 13, 237-255.
- Moore, R., & Gillette, D. (1990). *King, Warrior, Magician, Lover: Rediscovering the archetypes of the mature masculine*. San Francisco: Harper Collins.
- Murdock, M. (1990). *The Heroine's journey*. Boston: Shambhala Publications.
- Tresidder, J. (2000). *Symbols and their meaning*. London: Duncan Baird. (Korean trans. 2007)
- Turner, B. A. (2005). *The handbook of sandplay therapy*. Chicago: Temenos Press. (Korean trans. 2009)
- Von Franz, M. L. (1999). *The cat: A tale of feminine redemption*. Toronto: Inner City Books.

Wolff, T. (1981). Struktur formen der weiblichen pshche. *Studien zu C. G. Jungs Psychologie*, 2. Aulf. pp.273-278. (Korean trans. 2001)

투고일 : 2012. 10. 11

게재확정일 : 2012. 11. 30